



## 고통을 나누는 즐거움

장명숙/서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

**바**람이 선선해 졌다. 그 바람에서 느끼는 자연의 섭리에 문득 너무 감사하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는 우리 상담소에겐 아주 힘겨운 하루 하루로 다가왔다. 그 이유는 방문상담을 하루가 멀다하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이 주대상이기에 방문상담이 들어 왔을 때는 무조건 나가야 했다.

생전 처음 가는 낯선 지역의 낯선 집을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화로만 알게된 곳을 찾아가기는 어쨌든 힘이 들었고 무더위가 한창인 오후엔 더했다. 그런 하루를 견디고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어제 퇴근시간에 인사 못한 동료의 얼굴을 보면 서로에게 다 말하지 못하던 고마움을 마음으로 또 얼마나 나눴는지 모른다. 지하철을 수없이 갈아타고 골목 골목들을 누비며 다리 폼을 팔아 성폭력 당하고 가정폭력 당한 여성장애인을 만나 상담했다.

그리고 사건화 된 일을 대응하기 위해 법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다.

서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2001년 3월 15일 개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상담소에 들어오는 주된 상담은 작년부터 수면에 떠올라 이슈화되었던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관한 성폭력 상담이다. 지능지수 70이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적응 행동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한 마을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당하다가 상담 온 사례, 정신지체인에 대한 명확한 인지도 없이 법원에서 내려진 무고죄에 대한 상담 사례, 가족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하소연하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억울한 상담 사례……

이들 중 대부분의 상담들은 상담 즉시 의료지원을 해줘야 하고, 경찰과 연락해야 하고, 법원을 드나드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측 없이 시작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나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일들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상담을 하며 개인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과 배움의 끝없는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며칠 전 분위기 그윽한 조출한 모임의 자리에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다.

“하는 일은 어떠한가요. 혹 즐거운 일은 없나요?”

순간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즐거움이라. 글썽 고통을 나누는 즐거움을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지체장애를 지닌 내게 있어서 여성장애인과 직면하여 상담하는 것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매우 애절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내 장애에 대한 극복의 과정이리라. PPFK